

청춘, 그 이름으로 젊어지는 나라

오늘 공화국은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으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 있다.

청년강국, 이 부름속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의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선봉적, 핵심적 역할에 의하여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나지 않는다.

전후 재가무난 날리던 이 땅에 천리마의 기상이 나라 전체에 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위업을 불과 14년 동안에 이룩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것도, 웅장한 현대적인 도시들과 거리를, 공장들과 발전소들을 비롯하여 로동당시대를 빛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울 수 있는것도, 고난과 시련속에서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질 수 있는것도,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 조국을 받들어온 믿음직한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청년문제가 제일 난문제로 나서고있지만 공화국에서만은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위력떨치고있기는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청년중시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정치반도체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애국의 기치, 반일의 기치 밑에 청년들을 굳게 묶어세우시었기에 식민지노예가 되어 속절없이 시들던 이 나라의 청년들이 혁명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할 수 있었고 손에 무장을 틀어잡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안아올 수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해방후 청년들은 새 조국건설에서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떨쳤었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서슴없이 목숨을 바쳤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김일성주석님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을 몸들 맡글것이라고 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의 글줄이 숭엄히 되새겨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 감회깊이 쓰신것처럼 청년들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과 믿음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것

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었다.

혁명명도의 전 기간 아버지사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투쟁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운동이어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 구호가 온 나라에 높이 울리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혁명의 해를봉을 넘겨주시며 청년들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내세워주신것도, 조국앞에 엄중한 시련이 닥쳐 온 고난의 시기에 고속도로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도로이름에 《청년》, 《용영》이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믿음에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진정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청년들을 환복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어 조선청년운동의 명맥은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져왔었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역사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련면히 이어지고있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한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1.26》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된 역사의 분수령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에게 안겨주시는 이 천길발발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여 조국번영의 불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청년중시의 감동깊은 일화들과 화폭들을 수없이 펼쳐놓았다.

주제101(2012)년 뜻깊은 청년절을 맞아 평양에서 청년절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머나먼 전선길에서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신 이야기, 청년동맹은 당 다음가는 중요한 정치조직이라고,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척후대, 익축부대로 든든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믿음과 안전주신 가슴뜨거운 사실, 청년들이 있는 곳은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머나먼 북방의 발전소년건설장에만도 여러 차례 새겨진 헌신과 로고의 그 자욱자욱...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

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단련한 청년들, 잘못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이 못내 기록하고 대견하시어 천군만마를 얻은것처럼 천군기뻐하시던 자애로운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온혈은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이 나라 청년들을 시대의 청년미공선구자, 영웅청년선화화의 창조자로 역세게 키우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청년전위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들에서 돌격로가 자랑스럽게 려지고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 승승장구해나가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내주신 역사적서한 《혁명시대 승리를 향한 역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는 청년들의 피끓는 심장마다에 성스러운 애국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지펴주고 조국의 수백만 아들딸들을 부강조국건설의 정업한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였다.

위대한 당을 따라 전대미문의 적남을 뚫고 언제나 곧바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

청년 그 빛나는 령정은 청년들을 억만자루의 품을 들

어 청년강국의 주인공, 주제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조선청년운동이 자기 발전의 최정성기를 펼쳐 온 성스러운 행로였다.

하기에 언제나가 외국어의 한 인사는 《청년강국과 주제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조선의 청년강국의 위용은 출중한 인물과 기백, 천리해안의 예지와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김정은령도자의 기상과 령도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젊음에 넘친신 그의 령도아래 나라가 젊어지고 인민이 젊어지며 더욱 찬란한 미래가 밝아오는 조선은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그이를 높이 모시어 가장 활력에 넘친 청춘기를 금지높이 노래하는 조선의 청년들은 오늘날 영웅, 위훈, 열정, 사랑, 미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그렇다.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수백만 청년들이 그들의 두리터에 굳게 무쳐 사회주의건설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기에 주제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수백만 청년대군을 가진 주제조선의 힘을 당할 자가 세상에 없다.

리 라연

역사에 새겨진 조선청년들의 위훈의 발자취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청년강국이라는 이 부름속에는 공화국이 걸어온 역사의 단대마다에 높이 발췌된 청년들의 불멸할 위훈과 영웅청년선화들이 어려있다.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또 한단계의 도약을 요구할 때 조국이 부르는 투쟁의 정구들마다에서 불멸의 위훈을 창조한 청년들의 모습은 오늘날도 새세대 청년들의 본보기로, 삶의 거울로 되고있다.

1950년대
미국에 의하여 조선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84만 9 000여명의 청년들 전선으로 탄원. 조국해방전쟁기간 배출된 청년영웅 446명. 전후 1년동안에 청년들이 복구한 탄광, 광산, 기업소 915개, 로지 1만여정보, 판매공사 317개, 심은 나무 2억 400만그루.
조선로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여리에 달하는 해주-하성철길공사 단 75일동안에 완공. 1959년 6월부터 11월까지 6 000여명의 청년들이 바다로 진출. 대규모의 기양판계 제1계단공사 계획된 날자보다 2년반이나 앞당겨 완공.

1960년대
민청 제5차대회를 맞아 강계청년발전소건설, 평양-신의주철도전기화공사 완공. 근 10만명의 청년들 주요대장건설장으로 탄원. 1961년부터 1969년까지 150여만명의 청년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 260여만명이 7만여개의 청년들격에 입대. 청년작업반 3 580여개, 청년직장(경) 520여개, 《민청(사로청)호》기대 3 800대로 조성.

1970년대
3 600여명의 청년들격대원들로 이천-세로 새 철길을 건설. 2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평양-마동철도전기화공사를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회천-고인, 평양-덕천철도전기화공사와 청진조차장건설에 적극 기여.

1978년 한해동안에 수만명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농촌에 집단진출하여 수백개의 청년분조를, 그 다음해에는 2 000여개의 청년분조 조직.

1980년대
전국적으로 2만 5 000여개의 청년들격대 조직, 연 610여만명의 사로청원들 돌격대에 입대. 북부철길건설 제1계단공사, 광복거리, 인민대학습당, 만경대유회장, 김덕광산 제3선광장, 평양제1백화점, 창평원, 창평거리(1계단), 안상략거리, 조선 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를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공장, 기업소건설에 적극 기여.

1990년대-2000년대
역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근 700일동안 합마전, 마대전으로 100여리의 청년영웅들로 완공. 금야만의 바다가에 넉넉 수만능력의 광명성제염소 건설. 250여리구간의 철길농기와 47개소의 철다리, 14개의 역사와 13개의 차를건설 등을 끝내고 1997년 4월 15일 원산-금강산철길개통식을 진행.

2010년대-
2015년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를 완공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반남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훌륭히 완공.

나라의 정세가 전전정정에도 치달고있던 2015년 8월 단 하루동안에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여 원수격멸의 의지 힘있게 과시. 충성의 200일전투기간 수십개의 대장건설 완공, 500여대의 설비, 기계들이 《청년》호로 명명.

2020년에 들어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2021년 7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근 1만명,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이후 수천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

2023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되게 꾸리고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다그치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에 따라 펼쳐진 새 거리건설장으로 전국에서 무려 10여만명의 청년들이 탄원.

본사기자



요즘 이 땅 그 어디서나 매일이다싶이 들려오는 찬오로 기쁜 소식이 있다.

당시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로 탄원진출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는 소식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우리 청년들, 고생과 시련을 우력으로 여기며 대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미덥고 아름다운 것인가.

나는 이것을 얼마진 세포동판에 대한 취재경에서 더욱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곳에 세계대 청년들이 청춘의 배낭을 짰었다. 비록 성격과 취미, 학력과 나이는 물론 나서자란 고향과 탄원진출한 날자도 서로 다르지만 당의 뜻대로 대규모출산시대의 토대를 더욱 든든히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려는 모두의 결심은 하나같았다.

그들속에는 세포동판의 바람세찬 등판에서 아직 찻해겨울도 나지 못한 한 《애송이》 처녀도 있었다.

알고보니 처녀의 집은 평양이었다.

이름은 김진아, 하고향내기

라네 친밀감에 우리는 마치 구면지기처럼 반갑게 통성했고 쉽게 마음이 통했다.

얼굴은 해베에 라서 가무스름한데 초롱초롱한 새눈과 오동오동한 불살은 아직도 애리를 벗지 못한 처녀의 귀염성을 더해주었다.

내가 처녀에게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을 했다고 하자 그는 어머니조국의 사랑만을 받으라며 자라난 세대에게 있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름다움과 순결함, 더없는 고상함과 찬된 인간성이 응축되어있는것이 아닌가.

우리의 계승자들은 이렇게 자랑하듯 말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생을 달게 겪으며, 때로 혼들리는 마음의 기동을 더욱 억세게 바로잡으며 폭풍도 강설도 두려움없는 거목으로 꽃꽂이 성장하고있는 것이었다.

세계의 곳곳에서 청년들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도로, 도시에서 찾아들

하기에 그들은 그 어떤 고생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달게 여기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락으로 여기는 청년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있는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두려움을 모르는 처녀의 저 뜨거움 심장이 애도서나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 열정의 대명사로 불려워지는것이 아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어느한 잠지에 《최송한 청년들》이라는 표제의 기사가 실렸다.

《최송하다.》는 한장의 유서를 남기고 애절한 나이에 자살의 길을 택한 가엾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생의 꿈을 안고 대학졸업후 공무원시험을 준비했었던 환공민중과 약속강제의 사퇴된 남조선에서의 야만적차별지정은 스디는 좌절과 실재였다. 자기를 바라보는 식구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수 없었던 그 청년은 시험에 합격했다가 본의아닌 거짓말로 가족을 위로하며 《가짜출근》을 하였다고 한다.

《가짜출근》, 과연 그때 그의 심정은 어땠었는가. 이렇게 근 1년을 가족을 속인 랑심의 죄책속에, 일거리없는 고통속에 《취업난》 커머 구원의 손길을 예리하게

청춘을 빼앗긴 《최송이》들

바라던 청년이었다.

하긴만 차디찬 사회는 그에게 실외같은 희망의 빛조차 던져주지 않았으니 시간간 호를수록 늘어나는 것은 빚뿐이었고 커가는 것은 삶에 대한 공포와 절망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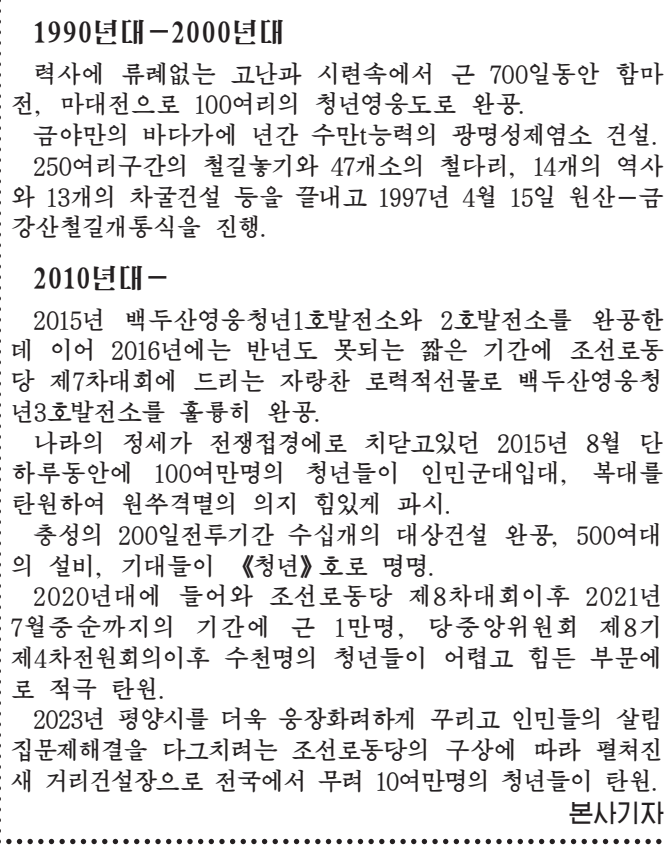
결국 절망과 빈곤에 시달리던 그는 더는 견딜수 없어 《최송한 비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선택을 하였던 것이다.

《청춘이여 최송하다.》 이것이 어찌 남조선의 한 청년만의 피라는 절규라고 하랴. 남조선에서 어디 가나 들을수 있는 수많은 청춘들의 절망에 찬탄적이다.

일자리가 없어, 결혼을 하지도 해도 돈이 없고 집이 없어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수많은 《최송이》들이 터치는 가슴아픈 하소연이다.

남조선에서 통치배들, 정치인으로 자처하는자들은 그 무는 《청년을 위한 정치》를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지만 《청춘의 비극》은 계속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청년들속에서 《차라리 굶지나 말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언론들까지도 《취업난》 앞선데 코로나 덮친 20대,



눈서리를 이겨내는 꽃

《사실 집안의 외동딸로 고이 자란 제에게 있어 비바람 세찬 방목지의 엄숙한 환경은 청춘의 랑심과 의지를 겸중반는 하나의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원할 때 다진 맹세를 매일과 같이 되새겨보며 마음을 굳세게 가다듬군 합니다.》

사실 전... 빨리 겨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

의아해하는 나에게 처녀는 나직한 어조로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 어머니당을 우리러 변심없이 자신의 랑심과 의지를 검증받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아, 얼마나 훌륭한 처녀인가. 겨울을 기다리는 처녀! 이 짧은 말속에 그의 모든

매 우리 청년들은 수도시민중을 과전장으로 바꾸어 탄원으로, 농장별로 달려나가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추져없이 진출하고있다. 율해에만도 당의 응대한 수도건설시상을 받들고 전국적으로 10여만명의 청년들이 서포자구 새 거리건설장에 탄원해나갔다.

그들이 바라보는것은 그 어떤 개인이 향락이나 명예도, 안락한 생활도 아니다.

진승세대와 천리마시대의 청년들이 그려왔던것처럼 오 늘도 매일도 자신들이 흘리는 한방울한방울의 피땀으로 국가를 더 밝게 물들이며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자랑찬 역사를 궁지없이 써나갈 불라는 애국의 열망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출구 없는 사회 '최송한' 청년들

본사기자 김혜성